

(가)

‘마이크로코먼웰스 속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며 사회 권력에 의해 유형화되지 아니한 개인들이 살아가는 소규모 공동 사회.’ 빅터 마이클 베커가 제시한 축소 사회론의 이상 사회 모형이다. 베커는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규모가 확대되어 개인의 개성이 무시된다는 점과 권력의 우열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점, 그리고 사람들을 숫자로 나타내는 현실을 지적하며 과거의 소규모 농업 공동체로 회귀해야 한다는 ‘축소 사회론’을 제기했다.

베커가 제시한 축소 사회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5인 내외의,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에 종사하며, 원형적 상징 기반의 ㉔자연물 신화가 제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공동 사회. 이와 같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베커는 현재의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최우선순위의 임무라고 주장한다.

베커는 모든 공권력의 기반이 되는 의회를 가장 먼저 제거한 후, 행정부 수장, 기타 정치 요인(要人)을 제거하고 마지막에 경찰을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확대 사회에서 축소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사회 혼란 및 치안 문제가 대두될 위험이 있으리라 예측 가능하며, 가급적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대전제에 따른 것이다. 그는 과도기에 이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할 한 명의 세계 수장은 바로 UN(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사회가 축소 사회로의 이행을 마친 후에는 ㉕그가 스스로 권력에서 내려와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으면 축소 사회의 마지막 치안 담당자인 ‘빅터’라는 인격에 의해, 공권력과 마찬가지로 결국 제거될 운명에 ㉖적면할 것이라고 하였다.

빅터 마이클 베커의 축소 사회론은 조지프 캠벨의 원형 신화 이론과, 칼 구스타프 융의 원형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의 사회 문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개혁론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점과, 자연물 신화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㉗다신교로의 회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그의 이론의 한계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나)

융은 꿈의 이미지와 고대 신화 연구에 몰두하면서 신화와 신경증 환자가 떠올리는 이미지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한 환자는 태양의 한가운데서 둥근 관이 나오고 그 관을 움직여 바람을 만들어 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고대 미트라교 경전에 나오는데, 환자는 미트라교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융은 환자가 기술하는 꿈에서 본 환상이 고대로부터 이어져오는 이미지나 상징의 집단적 저장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인적 무의식에 덧붙여 ‘본능’과 ‘원형’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집단 무의식’을 가정했다.

본능이란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충동으로 새들의 귀소 본능처럼 ㉘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융은 인간에게는 이와 더불어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 양식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원형이라고 하였다. 융에 따르면 들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것이며, 본능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원형은 개인의 이해 방식을 결정한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충동이 결정되고, 행동하려는 충동도 상황 이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융은 이처럼 본능과 원형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원형은 본능처럼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원형이 유전된다는 것은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라마르크의 오류를 답습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융은 유전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이미지들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형은 순전히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이고, 원형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들은 환경이나 역사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 때문에 융은 후기 저작에서 ‘원형 자체’와 원형적 이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원형적 이미지들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들 사이에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원형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융은 원형 자체가 최초의 무형 상태로부터 구체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틀이라고 보았다. 그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는 원시의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화의 형태로 남는다.

1.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가)는 특정 주제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 변화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 따라 열거하고 있다.
- ② (가)는 특정 철학자의 이상 사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는 특정 철학자의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이론의 배경이 되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⑤ (가), (나)는 모두 특정 이론에 대한 논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

2. ㉗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축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오류 가능성 때문이다.
- ② 확대 사회가 가진 장점마저도 제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③ 권력의 우열 관계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④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 ⑤ 축소 사회의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3. (가)의 베커와 (나)의 응의 입장에서 <보기>의 ㄱ~르를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ㄱ. 우리는 최소국가 안에서 타인에 의해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존엄성을 가진 개인이자, 인격을 보호받는 권리자이다.

ㄴ. 종교는 원형적 상징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해석하고 신 또는 자연에 내재된 신성성을 숭배하는 것은 개인의 해석에 달려있을 따름이다.

ㄷ. 획득 형질은 유전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화적 내용이 후손으로 유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 이상의 존재이거나 조금 모자란 사람이다.

ㄹ. 상징은 모든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이때 원형 그 자체와 원형적 이미지가 서로 같은 것이라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 ① 베커는 ㄱ과 ㄷ에 동의하겠군.
- ② 베커는 ㄴ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응은 ㄱ과 ㄷ에 동의하겠군.
- ④ 응은 ㄴ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⑤ 응은 ㄷ에 동의하지 않고, ㄹ에 동의하겠군.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빅터 마이클 베커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의 인격을 하나로 결합해 만들어진, 말하자면 하나의 인공적 인격이자 가장 훌륭한 이상 사회를 사고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세 사람의 정신적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영국의 초기 사회 계약론자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나오는 모든 국민의 힘과 권력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인격을 탄생시키는 사회와 표면적으로는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전혀 상반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즉 빅터 마이클 베커는 자신의 이름과 주장이 상충하는 모순 그 자체인 철학자인 것이다. 한편 토마스 홉스는 투쟁만이 만연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성과 공포심을 동시에 지닌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고 보았다.

- ① 토마스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빅터 마이클 베커는 자연적 인격인 '빅터, 마이클, 베커'의 세 개인과는 구별되는 다른 인격이겠군.
- ② 토마스 홉스의 관점이 사회뿐 아니라 인격에도 적용된다면, '빅터, 마이클, 베커'의 세 개인이 각각 이상 사회를 사고하는 것보다 세 사람의 인격을 하나로 결합해 이상 사회를 사고하면 더욱 훌륭한 사고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만약 더 많은 인격이 결합할수록 더 훌륭한 사고를 하게 된다는 명제가 참이라면, 이는 확대 사회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
- ④ 만약 모든 국민의 힘과 권력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인격을 탄생시킨 결과가 자연상태에 비해 더 불행하다는 명제가 참이라면, 이는 축소 사회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
- ⑤ 만약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성과 공포심을 발휘한 결과가 사람들을 더 훌륭한 삶으로 안내하게 될 것이라는 명제가 거짓이라면, 이는 축소 사회론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

5. ㉠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놓일 것                      ② 처할 것                      ③ 마주할 것
- ④ 충돌할 것                    ⑤ 다가설 것